

2022년 한중 전문가 상호인식 조사

[조사 시점 2021.12.]

2022. 03. 25.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목 차

1. 조사 개요	2
가. 조사의 목적	2
나. 조사 방법 및 표본의 특징	3
2. 조사결과 분석	7
가. 한중관계 전반적 분석	8
나. 한중관계 외교안보 분야 분석	11
다. 한중관계 경제협력 분야 분석	18
라. 한중관계 사회문화 분야 분석	23
마. 2021 한중관계 테마분석 (1): 청년세대 간 갈등	32
바. 2021 한중관계 테마분석 (2): 한중 전문가들의 상대국 정보습득 경로	43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47
가. 조사결과 요약	47
나. 정책적 함의	49
보론. 「2020~2021년간 한중 상호인식의 변화 및 시사점」	52
참고문헌	57

※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책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물입니다.

1. 조사 개요

가. 조사의 목적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우호협력 관계’ (1992년)로 시작하여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 (1998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2003년)를 거쳐 현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2008년)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시기에 수교한 다른 양자관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중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으나 지난 4~5년 동안 양국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¹⁾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양국 정상적인 왕래가 중단된 상황에서 한중관계 회복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고, 그 사이 김치 논쟁, BTS의 한국전쟁 발언, 황사 발원지 고소 등 다각적인 갈등이 추가로 발생하며 민간영역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등 현재 한중 민간관계 개선에는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²⁾ 그러나 한중수교 30주년이자 팬데믹 장기화가 본격화된 2022년, 발전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현시기 노정된 한중 민간관계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간 한국과 중국에서 발표된 양국의 국가이미지 관련연구들은 양국 관계의 정서적 맥락 파악에 있어 다양한 차원의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었다.³⁾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자국의 상대국 내 이미지만 다루고 있거나 기업전략 차원에서의 소비자 분석 등 실용적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기존 연구들은 양국 간 갈등, 특히 민간정서 차원에서 상대국의 생각과 입장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거나,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 코로나19 발

1) 朴光海, 2020.

2) 門洪華·劉笑陽, 2017.

3) 안종석, 2014; 이재홍, 2018; 이춘수 외, 2006; 王曉玲·董向榮, 2010; 徐玉蘭, 2010.

생 등 최근의 정치적 변화들을 양국 간 국가이미지 연구의제에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가 발생한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고 한국과 중국의 중장기적인 인식 변화 추세를 꾸준히 관찰하며 비교할 수 있는 누적된 양적 기초자료가 없다. 둘째, 일국의 상대국 내 이미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설문으로 양측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중 상호인식에 대한 조사를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양국에서 <2021 한중 전문가 상호인식 조사>(이하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상술한 한중관계 중 상호 이미지 관련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인 한중 민간관계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조사>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비교연구의 시각에서 양국의 상호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인식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상호간 인식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중관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실성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외교·안보적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과 인문·사회 등 다양한 영역과 층위를 고려하여 한중관계 현안의 복합적 성질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공공외교의 발전적 청사진을 모색한다.

나. 조사 방법 및 표본의 특징

기존 국가 간 상호인식 조사 및 비교연구는 대부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두 나라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우 소수의 대면적 인터뷰나 비확률 표집 조사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기존 조사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설문지 상의 질문들은 대부분 응답자들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응답자는 그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응답자들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실제로 별로 신경쓰지 않는 주제에 대해 의견을 묻는다면 그 결과는 유용하다고 보기 어렵다.⁴⁾ <조사>는 단순히 양국 간 상호인식 현황뿐만 아니라, 그 현상을 형성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에게는 양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이에 일반인보다는 한중관계 관련 전문 연구자들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중관계 개선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문가 의견의 신뢰도가 더 높고 정책 수립 기관과 부서에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 조사에 비해 전문가 조사가 본 연구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전문가 조사는 연구대상자인 동시에 연구자이므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국 내 보편적 관점, 주류 의견, 특히 현상 등에 대해 풍부한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한계’를 줄일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하다.

전문가 조사에는 심층 면접이나 델파이(Delphi)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⁵⁾ 본 조사는 한중간 상호인식의 전반적인 현황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특정 학문 혹은 특정 분야 간 시각차로 인한 결과 왜곡을 피하고 결과에 대한 과잉 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적 많은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러한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시도한 연구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격변하는 국제정치 및 경제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진행된 조사로서 양국의 상호이해를 높이는 소통 플랫폼의 역할도 겸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은 과제 수행에 앞서 2020년에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1차년도 조사는 객관식 16문항과 주관식 3문항 총 19개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설문지는 따로 만들어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과제의 기틀을 잡은 예비연구적 성격을 지닌다. 이번

4) Babbie, 2009: p.334.

5) Murray Turoff, 1970.

연구과제는 2020년 1차년도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여 일부 문항을 병합 및 수정했고, 2021년 한중관계 관련 중요 이슈를 고려해 개별 문항을 추가하여 설문지에 반영했다. 최종적으로 2021년 조사는 객관식 12개 주관식 2개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고 보다 시의성 있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 한중 전문가 상호인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2021년 설문 문항 중 11개는 2020년 조사 문항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조사의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2021년 조사는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한국 측 100명, 중국측 100명으로 구성된 2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양국 간에 외교적으로 크게 주목할 만한 중대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한중관계에 큰 기복은 없었다. 2021년 조사에 참여한 200명의 전문가는 모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자국과 상대국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 한국 전문가는 중국 또는 한중관계 분야 연구자, 중국 전문가는 한반도 또는 한중관계 분야 연구자이다. 전공 분야별 구성은 정치·외교, 경제·경영, 인문·사회로 구분하여 4:3:3의 비율로 구성했다(<표 1> 참조).

한국 측 조사자 명단은 2020년 예비조사 명단과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한중 연구자 DB>를 토대로 추출했다. <한중 연구자 DB>는 2016년에 구축된 후 꾸준히 업데이트해 왔으며, 현재 한국과 중국의 각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자의 정보로 이뤄져 있다. 한국 전문가 100명은 대부분이 한국의 대학이나 정부기관 및 싱크탱크 등에 재직하고 있고, 그중에서 99명은 중국 생활 경험이 있다. 설문지는 구글 폼(google form)을 이용하여 작성되었고 이메일을 통해 발송·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국 측 조사는 중국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우완영 박사가 주도하여 진행했고, 조사자 선정은 스노우볼 표집법(snowballing sampling)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중국 전문가 대부분은 중국 국내 주요 대학

6) 처음에는 소규모의 응답자 그룹에서 시작하여 이 응답자들을 통해 유사 직무군의 다른 사람들을 소개 받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표집방법. Babbie, 2009: p.257.

및 싱크탱크 등에서 근무하고 있고, 극소수는 은퇴했지만 설문 대상자 모두가 중국 ‘국가철학·사회과학문헌센터’(国家哲学社会科学文献中心)에 수록된 핵심 저널⁷⁾에 최근 3년 내 한국 관련 연구논문을 게재한 이력이 있다. 그들 중에서 83명은 한국 생활 경험이 있다. 중국은 온라인 조사 규제 및 설문 키워드 검열의 문제로 인해 한국처럼 온라인 조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바, 이 점을 고려하여 중국 측 조사는 대상자를 사전 섭외한 다음에 워드 파일 형식의 설문지를 위챗(Wechat)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개별 발송·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 1> 2021년 <한중 전문가 상호인식 조사> 응답자 특징

구분		중국	한국		
연령	30대	58	3		
	40대	26	31		
	50대	14	46		
	60대	2	20		
	평균	40(최저:28/최고:65)	52(최저:34/최고:67)		
	계	100	100		
전공 분야	정치·외교	40	40		
	경제·산업	28	29		
	사회·인문	32	31		
	계	100	100		
해외 생활 경험		한국생활	기타국가	중국생활	기타국가
	없음	1	15	17	53
	1년 미만	6	23	8	12
	1-3년	32	30	20	26
	3-10	47	20	51	7
	10년 이상	14	12	4	2
	계	100	100	100	100

7)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상당하는 중국의 학술저널 DB.

2. 조사결과 분석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정부간 외교는 물론 민간관계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색 국면에 있던 한중관계는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주의 추세 속에서 양국 정부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역내 경제협력과 양자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사드 사태 이후부터 2020년 이전 2~3년간 한중관계는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왔으며, 이것은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경제무역 및 인적 왕래의 양적인 개선에 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경제무역과 인적 왕래의 양적 개선에 비해 민간정서와 상호인식 격차에 있어서는 회복세가 저조했을뿐더러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오히려 서로를 혐오하는 정서적 악화 추세가 대두되며 심지어 상호인식에서 점차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정치와 글로벌 경제상황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가 한중관계와 민간교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한중관계 발전에 간과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산업도 보완성보다는 경쟁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의 새로운 위상정립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한중관계와 민간교류에서 회복의 모멘텀을 약화시켰다. 이 기간 동안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급 정부·사회조직은 의료용품 기부, 방역물자 지원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발원지 논쟁, 중국의 도시 봉쇄 조치 등 이슈가 불거지며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인 입국 금지 국민청원, 황사 배상 고소, 김치와 한복 기원 논쟁, BTS 한국전쟁 발언 등 역사문화적 사안들이 양국 국민을 정서적으로 더 멀어지게 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에 적응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미래의 한중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공공외교를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중 간 상호인식을 전체에서 부분의 순서로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2021년에 중요하게 떠오른 한중관계의 새로운 이슈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조사결과 분석은 ‘한중관계 전반적 분석’, ‘한중관계 분야별 분석’, ‘한중관계 테마분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한중관계 전반적 분석’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2021년 한중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분야별 분석’은 외교안보, 경제협력, 사회문화의 세 분야로 나누어 양국관계를 분석한다. ‘한중관계 테마 분석’은 한중관계 및 공공외교에서 큰 걸림돌로 노정되고 있는 반중 정서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가. 한중관계 전반적 분석

한중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는 한중 양국 전문가들에게 한중수교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도록 요청하면서, 양국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를 기준점수(10점)로 삼아 현재의 한중관계 점수를 평가하도록 요청했다(<그림 1> 참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전문가들은 현재의 한중관계 점수가 전체적으로 가장 좋았던 시기에 비해 4.66점으로 낮아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향후 5년 후의 점수는 4.92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현재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한중관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크게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현재 한중관계 점수를 가장 좋았던 시기에 비해 낮아진 6.24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5년 뒤에는 7.02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전문가들에 비해 한중관계의 현실을 더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중관계의 미래 역시 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한중관계 전반적 평가

Q. 1992년 수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중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의 한중관계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또 5년 후에는 몇 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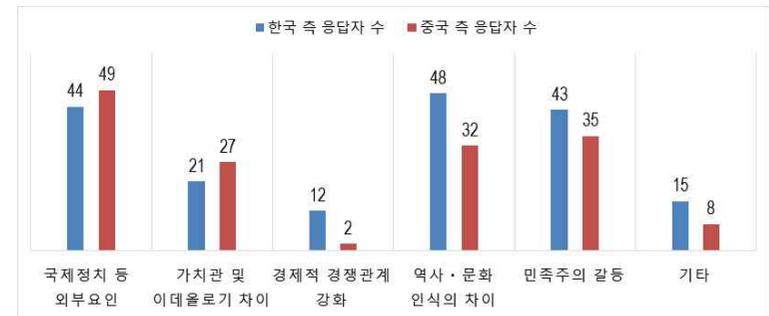


양국 전문가들이 현재 한중관계의 주요한 저해 요인으로 꼽은 요소들은 ‘국제정치 등 외부요인’과 ‘역사문화 인식차’ 및 ‘민족주의 갈등’이다(〈그림 2〉 참조). 특히 중국 전문가들에게 국제정치 등 외부요인은 한중 양국 사이에 내재된 갈등, 예컨대 가치관의 차이, 역사문제, 민족주의 충돌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미중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주어진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

의 선택지와 연관된 진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 분야의 관계 악화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 전문가들은 역사문화 및 민족주의 갈등에 외부요인 못지 않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과의 문화 갈등 문제 및 그에 수반하는 협중·반중 정서를 그대로 대변한다.

<그림 2> 한중관계의 주요 저해 요인

Q. 한중 민간 교류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



한편 ‘경제적 경쟁관계 강화’의 영향력은 모든 변수 중 가장 낮게 평가받아, 경제 분야에서의 한중 간 경쟁은 아주 큰 문제로는 간주되고 있지 않았다. 다만 눈여겨 볼 것은, 경제적 경쟁관계 변수에 대해 한국측은 일정 정도(12명)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측은 거의 영향이 전무(2명)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분야별 분석에서도 드러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한중관계를 바라보는 중국의 자신감이 ‘경제무역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원천으로 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측 전문가의 견해는 기존의 양국간 수직적 국제분업관계가 점차 수평적 분업관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력산업이 중국에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후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나. 한중관계 외교안보 분야 분석

〈그림 3〉 한중관계 외교안보 분야 평가

Q. 현재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중관계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분야의 조사결과 중 양측에서 가장 유사한 분포를 보인 분야는 외교안보 분야이다. 한국 전문가들이 4.47점을 주었고 중국 전문가들은 5.33을 주었다(〈그림 3〉 참조). 외교안보 분야에서 양측의 점수 차는 0.86로서 경제협력 분야(1.57점 차), 사회문화 분야(2.05점 차)와 비교하여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한중관계 중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관계가 가장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중관계 세 분야 중 ‘외교안보’ 분야가 가장 저조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외교안보 분야의 한중관계를 6점 이상으로 평가한 한국 측 전문가는 전체 100명 중에 총 31명인데 반해, 외교안보 분야의 한중관계를 6점 이상으로 평가한 중국 측 전문가는 전체 100명 중에 총 48명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문가들의 점수 분포가 중국보다 좌측에서 형성되어 있어 한국 전문가들이 중국측에 비해 현 시기 외교안보 분야 한중관계를 더 경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분야 한중관계를 한국측에 비해 더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종합국력의 비대칭성 속에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외교안보 행위에 더 큰 위협과 우려를 갖고 있는 반면,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외교안보 행위에 큰 위협이나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외교안보 분야 한중관계 점수는 2020년 조사에 비해 한중 양측에서 모두 개선되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외교안보 한중관계 점수는 한국측이 4.24이고 중국측이 4.60이었으나, 2021년에는 각각 4.47점과 5.33점으로 상승했다.

2021년 한중 외교안보 관계를 돌아보면, 한중 정상 간의 전화 통화, 외교 당국자 간의 빈번한 상호 방문, 방역 협력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고위급 채널이 비교적 잘 작동했다. 양국 정상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했고,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합의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향후 30년의 한중관계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미중 전략경쟁 구조하에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상승했고,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한중 당국 간의 일치된 전략적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2021년 5월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1년 5월 21일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인식을 함께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매우 예민하게 생각하는 ‘미사일 지침’도 폐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800km로 제한되어있던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데 합의했는데, 이는 한국에게는 자주국방의 기대감을 높이는 일이었지만 중국에게는 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결과로 미루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만해협 관련 발언, 한국의 미사

일 사거리 제한 폐지에 대한 반응이 중국 전문가들의 한중관계 진단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전문가들이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한미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및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지에 대해 한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주안점을 두려는 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한중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최근 중국 지도부의 인식이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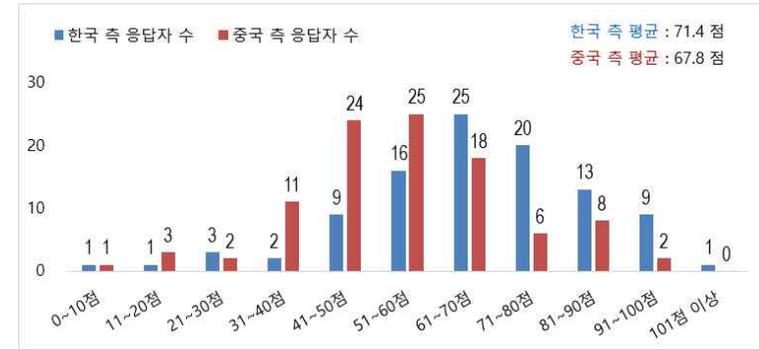
대중들의 상호인식 및 이미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비해 외교안보 관계점수가 높아진 배경에는 양국 정부가 상호 협력에 적극성을 보였던 것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양국 간의 방역 및 보건 협력은 신속 통로 제도의 공동 운영, 상호 방역 경험 교류 등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봉쇄, 차단, 단절, 제한 등의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은 방역 관련하여 상호 소통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은 방역 및 보건 협력을 생태, 환경, 탄소 중립, 황사 예방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논의로 확장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비록 미세먼지 등 일부 의제에서 아직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양국이 방역 및 보건 협력을 모멘텀으로 삼아 탄소 중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시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한중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과 대비한 중국의 영향력 평가 문항은 양측이 유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그림 4> 참조). 한중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에 비해 떨어지지만 5년 후에는 현재보다 높아진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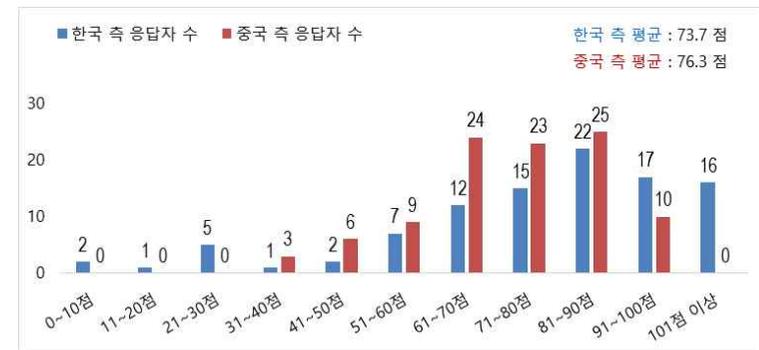
만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전문가들에 비해 5년 후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림 4> 한국에 대한 미중 영향력 비교

Q. 현재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_____이다.



Q. 5년 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_____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전문가들이 평가한 현재 중국의 대한국 영향력은 7.14점이었는데, 미국의 61~80%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그룹(45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그룹(25명)은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의 41~60%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한국 전문가들이 예상한 5년 후 중국의 영향력은 73.7점으로, 총 30명이 81~100%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고 37명

이 61~80%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의 약진을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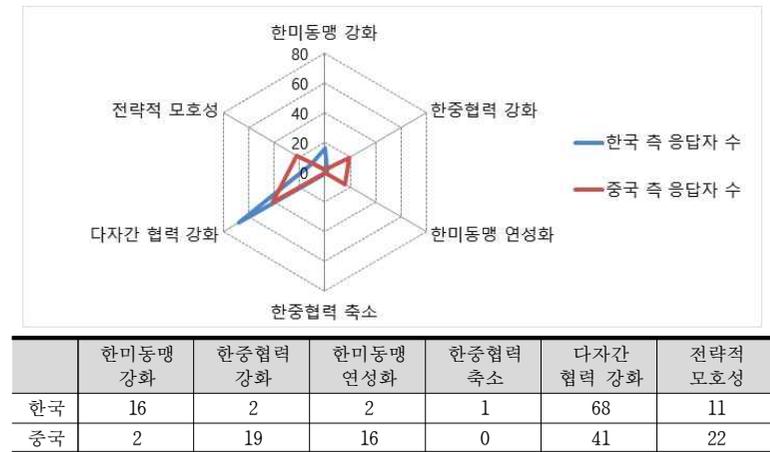
한편 중국의 전문가가 평가한 현재 중국의 대한민국 영향력은 67.8점으로 한국에 비해 낮았고, 분포상으로는 미국의 61~80% 사이라고 평가한 그룹(43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그룹(35명)에서는 41~60% 사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5년 후 중국의 대한민국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76.3점을 기록하여, 중국측이 오히려 한국측에 비해 한중관계의 미래에 더 큰 자신감과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미중 전략경쟁이 구조화되고 장기화되는 흐름 속에서 미국 요인은 한중관계에 중요한 외생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021년 1월 시진핑 주석의 요청으로 한중 정상 간의 통화가 이뤄졌는데, 이는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중국이 먼저 한국에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주요 외교 기조로 삼고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RCEP, 한중일 FTA, CPTPP 등 다자제도 추진에서 한국의 협력을 얻어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 쪽에 경도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도 종전 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필요로 하지만, 중국은 한국 측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와 북한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한국이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현상을 수정하려는 의지를 지닌 반면에 중국은 여전히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향후 미중 전략경쟁이 더욱 심화될 경우 한국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 한국 측 전문가들의 최대 다수(68명)는 “다자간 협력 강화”를 선택했고, 16명이 “한미동맹 강화”를 선택했다. 중국 측 전문가들은 최대 다수인 41명이 한국이 “다자간 협력 강화”의 선

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22명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국 전문가들 중 “한중협력을 강화해야 한다”(19명)고 생각하거나 “한미동맹을 연성화해야 한다”(16명)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여기에 동의하는 한국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그림 5) 참조).

〈그림 5〉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한국의 선택지



한국은 미국과 외교안보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미중 경쟁의 심화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한중관계 미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미국과의 외교안보 협력을 중시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2019년 갤럽 인터내셔널(Gallup International)이 전 세계 54개국 성인 5,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대 강국의 국제정책이 세계를 얼마나 안정화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84%가 중국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54개국 전체 평균인 42%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중국의 주변국인 일본과 베트남도 각각 60%와 67%를 기록하여 높은 편에 속했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낮았다. 중국이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한국의 전문가들에게도 미국과의 외교안보협력을 중시하게 인식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한중관계 조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과도 관련된다. 바로 안보영역과 경제영역 간 연계이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안보와 경제가 분리된 구조가 구축되어 있으나 중국과는 외교안보적인 문제가 경제문제로 직결된다는 인식이 정립되어 있다. 특히 사드 갈등 과정에서 외교안보와 경제가 함께 경색되는 상황을 겪은 이후 한국사회에는 중국과의 안보 갈등이 경제 제재를 동반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현재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국제경제질서와 공급사슬이 점차 지역화 및 블록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한중관계의 장기발전에 새로운 난제로 떠오를 수 있다.

미중의 전략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무역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표준 및 규범 경쟁으로 확대되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코로나19의 발원지를 둘러싼 블레임 게임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다. 특히 미국의 탈중국화, 즉 전략적 디커플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지역가치사슬(RVC)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지역가치사슬이 효과적으로 구축된다면 중국이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홍색공급망을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글로벌 분업체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미국이나 유럽과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며 각국 경제에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주는 위협을 가시화함에 따라 경제변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Blue Dot Network, 5G Clean Path, Democracy 10 등 탈중국화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안보공동체의 창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렇듯 미중 디커플링이 가속되면 국제 경제질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하며 외교적 딜레마에 봉착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상술한 대로 한국사회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정치적 속성을 띤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므로,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의 돌파와 우군확보를 위해 한국에 내미는 경제적 우호관계의 손을 ‘불순한’ 것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당연하게도 이는 한중관계의 악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한중관계 경제협력 분야 분석

〈그림 6〉 한중관계 경제협력 분야 평가

Q. 현재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중관계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분야 조사결과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중국측이 한국측보다 양국 경제관계를 좀 더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6〉 참조). 한중 양국이 모두 평균치보다 높은 긍정적 평가를 했으며(한국: 5.77점, 중국: 7.34점), 중국의 낙관적 시각이 두드러진다. 그런데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무엇에게 호감 혹은 반감을 느끼냐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번 조사에

서는 상대방의 정부 < 사람 < 사회문화 순으로 호감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아래 <표 2>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약간 더 높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의 정부에 대해 ‘매우 부정’, 사람에 대해 ‘다소 부정’, 사회문화에 대해 ‘보통’ 정도의 호감을 갖고 있다. 중국인은 한국의 정부에 대해 ‘보통’, 사람에 대해 ‘다소 긍정’ 혹은 ‘다소 부정’, 사회문화에 대해 ‘다소 긍정’ 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이는 사회문화 분야가 양국 관계 개선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전문가 상호인식 조사에 나타난 대상별 호감도

	정부	사람	문화
한 → 중	매우 부정	다소 부정	보통
중 → 한	보통	다소 긍정 또는 다소 부정	다소 긍정

부정적 인식의 원인은 ‘피해자 의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사드와 한한령’에서 중국은 사드배치로 인해, 한국은 한한령으로 인해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강하게 인식하는 듯하다. 그래서 이 항목의 인식이 일치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치·BTS 사건’도 “한국의 것을 중국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서술이 가능하므로 한국의 반감이 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자는 한국인”과 같은 항목을 넣으면 중국의 반감이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 ‘황사·미세먼지’나 ‘예능방송 표절’ 문제도 “중국이 한국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서사에 해당하므로 한국측의 반감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 인식의 원인은 역시 상대방의 문화이다. ‘문화컨텐츠’에 있어 중국인들은 확실히 한국문화에 대해 호의적이다. 한국인들도 중국의 ‘음식·역사·문화’에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 한편 한국인은 중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긍정적 인식을 가진 반면, 중국인은 한

국의 사회 거버넌스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중국이 자처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제도 속에서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정부 거버넌스 모델에 개방적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표 3> 2021년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재중국 활동

	확장	구조조정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공장 확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 확대 	
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G전자 난징 자동차부품 설비 확장 삼성전자 DX부문 중국사업혁신팀 출범 	LG전자의 구조조정
디스플레이		BOE의 OLED 진출
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G 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인수 포스코케미칼의 설비 확장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한석화 설비 지속 확장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코 자동차강판 합작사업 추진 	현대제철 중국 사업 구조조정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Rising again, For China” HTWO 광저우(廣州) 포스코인터내셔널, 우저우 모터코아 설비 확대 	현대차의 중국 공장 매각 및 구조조정
원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산중공업 지진자동정지설비 납품 	

자료: 최필수, “2021년 한중 경제관계: 미중갈등과 산업경쟁력 변화의 도전과 대응,” <2021년 중국경제보고>, [표12] 재인용.

<표 4> 2021년 한국 중국진출 기업의 향후 투자방향 및 사업전개 방향

(단위: %)

출처(샘플수)	크게 확대	다소 확대	현상유지	다소 축소	크게 축소	철회
전경련(133)	8.4	22.9	40.5	16.0	12.2	
무역협회(208)	25.0		53.8	17.3		3.8

자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경영환경 전망과 시사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rade Focus』(2021년 39호)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10년 한국기업 중국내 사업환경 변화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2021.12.22.)에서 발췌.

그러면 이처럼 한중 상호인식과 정서가 비우호적이고 괴리된 상황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은 과연 위축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한국기업은 양국관계나 국민들의 정서로 인한 외부조건이 어떻든 간에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장이자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포기한다는 발상은 하지 않고 있으며 미중갈등 속에서도 양자택일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2021년에도 과감한 중국 비즈니스를 추진했다. <표 3>에 이러한 정황이 잘 나타난다. 자동차와 가전 부문의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도 관찰되지만 반도체, 전자부품, 첨단 디바이스, 배터리,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의 부문에서 모두 확장적인 비즈니스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폰의 시장 점유율 위축에도 불구하고 새로 재편된 DX(Device Experience) 부문에 중국 사업부를 따로 신설하여 중국 시장에 체계적으로 다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경제단체들이 조사하여 발표한 한국기업의 재중국 활동 현황을 보아도 비슷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8개 재중 한국기업을 조사하여 2021년 12월에 발간한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최근 경영환경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년 중국에서의 실적을 올해보다 낙관하고 있으며, 현지 업체의 경쟁력 상승과 미중갈등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중국에서 철수할 의향은 3.8%에 불과했다. 전경련도 중국에 진출한 133개 한국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5년간 투자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한 답은 크게 확대(8.4%), 다소 확대(22.9%), 현상유지(40.5%), 다소 축소(16.0%), 크게 축소(12.2%)와 같이 나타났다. 두 단체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대체로 20~30%의 기업은 축소나 철수를 고려하고 있지만 30%에 가까운 기업은 확장을, 40~50%는 현상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경제협력이 두 나라 관계의 추동력이 되고 있는 현실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정치외교·사회문화적 갈등이 있어도 경제협력 부문이 이것을 완화시킬 것이다. 감정적 갈등보다 이윤동기가 더 분명한 실체

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양국간 감정이 안 좋아도 기업들은 그것을 무릅쓰고 비즈니스를 한다. 특히 소비재가 아닌 부품과 소재 부문에서는 국민 정서의 영향을 덜 받는 냉철한 거래가 이뤄질 것이다. 소비재 중에서도 압도적인 가성비로 부정적 인식을 이겨내는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며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샤오미나, 최근 대중수출 10대 품목에 진입한 한국의 화장품이 그런 예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반감이 장기화되면 경제협력까지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재나 유통업에 있어서 소비자의 반감은 치명적이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 형성된 반감으로 인해 현대차나 롯데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한국 시장에 중국 제품이 자리잡기 어려운 것도 비슷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2021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사상 최대인 202만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국의 205만대와 비슷한 실적이다. 특히 전기차 부문에서 중국은 첨단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유럽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자동차 수출량에 있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중국 자동차의 품질을 인정하고 구매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품질 자체에 대한 불신이 사라져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한국 제품도 비슷한 이유로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렇듯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그러한 가시적 사실을 인식할 수 있지만, 만일 갈등 때문에 잠재적인 경제협력 가능성이 사라졌다면 이는 인식하기조차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사안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구조적 원인이 있는 의도적 행위’로 인한 서로에 대한 반감은 일거에 해소되기 어렵다. 북핵이 존재하는 한 미국(한국)은 사드를 철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암묵적인) 한한령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 홍콩·신장·티벳 문제는 정치체제 상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서구의 보이콧 동참 요구를 초래

하므로 정치사회적 이슈가 경제적 리스크로 전환될 위험을 안고 있다. 화웨이 배제 요구에 대해 그랬듯이, 한국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응대하며 서방이나 중국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반면 구조적 원인이 없거나, 고의적 행위가 아니거나, 서로의 오해에서 기인한 갈등은 완화될 수 있다. 불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무엇이 누구의 것인가” 식의 논쟁은, 과거 동북공정 갈등을 학술적 논의에 국한시켜 해결했던 것처럼 양국 정부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의 자연환경에 기인한 면이 크다는 사실과 중국도 탄소절감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이 이해한다면 점차 해결될 수 있다.

라. 한중관계 사회문화 분야 분석

〈그림 7〉 한중관계 사회문화 분야 평가

Q. 현재 사회문화 분야에서 한중관계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문화 분야 조사결과는 ‘ 전반적인 악화 ’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한국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살펴보면, 사회문화 분야의 한중관계는 평균 3.99점으로 평가되었다(〈그림 7〉 참조). 눈에 띄는 부분은 10점 척

도의 설문 문항에서 1점을 택한 사람이 무려 10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현재 사회문화 분야의 한중관계를 최악으로 본다는 뜻이다. 중국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임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를 평균 6.04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2020년의 6.49점보다 0.45점 하락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되어야 할 사실은 현재 한중관계에서 사회문화 분야가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측 조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평가점수는 평균 3.99점인데, 이는 한중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치(4.66점)보다 크게 낮은 수치이며 나아가 외교안보(4.47점) 및 경제협력(5.77점) 분야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그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중국의 경우도 마냥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전문가 집단이 매긴 6.04점은 한중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치(6.24점)보다 0.2점 낮다.

한중 양국의 전문가 집단이 모두 사회문화 분야의 한중관계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훨씬 더 심각한 곳은 한국이다. 바꿔 말하자면, 방향은 동일하지만 그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조사>의 사회문화 분야에서 양국 전문가 집단 간의 차이는 대략 2.05점(6.04-3.99) 정도이다. 그런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인식차이는 0.86점(5.33-4.47)에 불과하다. 경제협력 분야의 인식차이도 1.57점(7.34-5.77)에 그쳤다.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사>의 다른 항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사>는 한중 민간교류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을 묻고 있는데(〈그림 2〉 참조), 여기서도 사회문화 분야의 이슈가 두드러진다.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역사·문화 인식의 차이”(48명)를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정치 등 외부요인”(44명)과 “민족주의 갈등”(43명) 등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 집단은 “국제정치 등 외부요인”(49명)을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민족주의 갈등”(35명)과 “역사·문화 인식의 차이”(32명)

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민족주의 갈등”이 많은 경우 “역사·문화 인식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중 전문가 집단, 특히 한국의 전문가 집단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한중 정부·국민·문화에 대한 상호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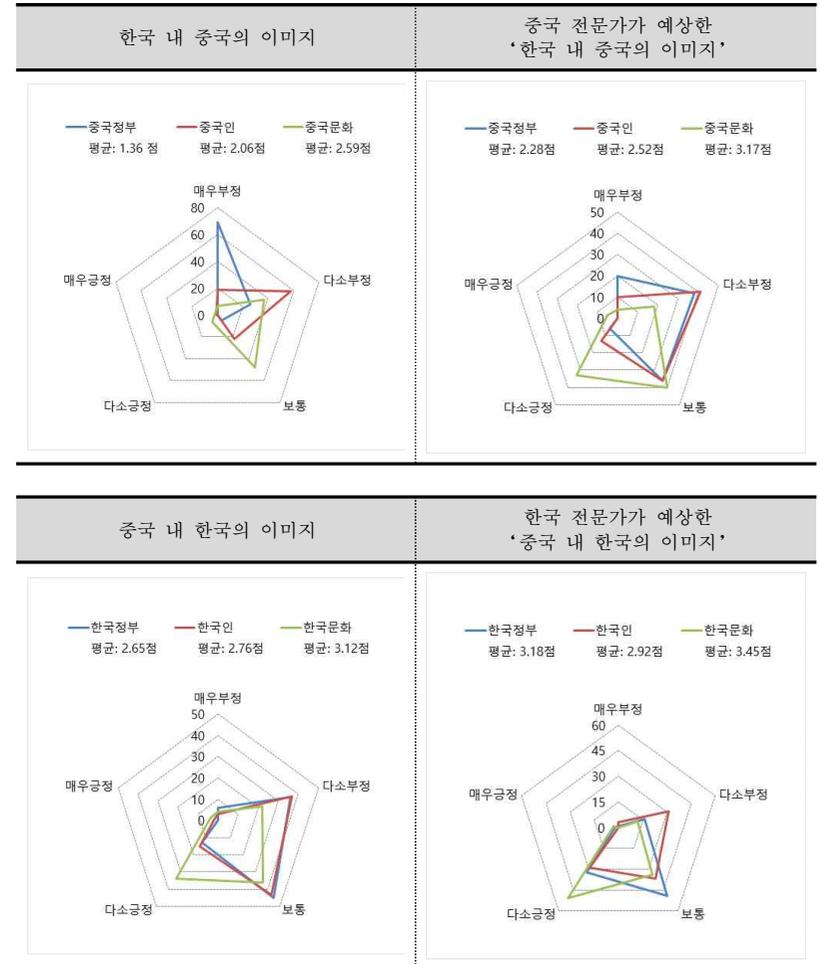
평가주체	한국			중국		
	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대상	평가대상
매우 부정	69	19	7	1	3	0
다소 부정	26	58	37	16	31	12
보통	5	22	48	49	37	34
다소 긍정	0	0	6	32	29	51
매우 긍정	0	1	2	2	0	3
평균	1.36	2.06	2.59	3.18	2.92	3.45

상대국 정부 및 국민, 문화에 대한 이미지 조사(〈표 5〉 참조)에서도 그 상황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한국사회(일반국민)가 중국 정부 및 중국인, 중국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에 대한 선호도는 1.36점을 기록했고, 중국인은 2.06점, 그리고 중국문화는 2.59점을 기록했다. 모두 보통 이하의 점수이다. 중국의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의 전문가 집단이 한국 정부 및 한국인, 한국 문화에 대해 매긴 점수는 각각 3.18점, 2.92점, 3.45점이다.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양국 전문가 집단의 인식 차이이다. 〈조사〉는 양국 전문가 집단에게 자국 정부·국민·문화에 대한 상대국 사회(일반국민)의 이미지도 예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예상치’라 부른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실제 ‘평가치’와 비교해볼 수 있다. 〈그림 8〉은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고 〈표 6〉은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8〉 분야별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Q. 귀하는 현재 자국민의 상대국 정부/국민/사회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각각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상대국 국민은 자국 정부/국민/사회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각각 어떻습니까? (매우 부정~매우 긍정 :1~5점)



우선 〈그림 8〉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다각형 모양이 서로 크게 다

른 곳은 “중국 정부”와 “중국 사회문화”, “한국 정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예상치’와 ‘평가치’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가령 “중국 정부”의 경우, 중국의 전문가 집단이 예상한 것은 “보통”과 “다소 부정”에 걸쳐 있는 다각형의 모양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가 집단이 평가한 것은 “매우 부정”에 치우쳐 있는 삼각형 모양이었다. “중국 사회문화”의 경우에도 중국 전문가 집단이 예상한 것은 “다소 긍정”으로 향하는 다각형이었지만, 한국 전문가 집단이 실제 평가한 것은 “다소 부정”으로 치우쳐 있는 다각형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 전문가 집단이 예상한 것은 “다소 부정”에 치우쳐 있는 다각형이었지만, 중국 전문가 집단이 평가한 다각형은 “다소 긍정”으로 치우쳐 있었다.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국민·문화에 비해 중국 정부·국민·문화의 예상치와 평가치 사이의 간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6〉 양국 이미지의 상대국 내 예상치와 실제 평가치

대상	중국정부		중국인		중국문화		한국정부		한국인		한국문화	
	예상	평가	예상	평가	예상	평가	예상	평가	예상	평가	예상	평가
점수	2.28	1.36	2.52	2.06	3.17	2.59	2.65	3.18	2.76	2.92	3.12	3.45
평가-예상	-0.92		-0.46		-0.58		0.53		0.16		0.33	
평균절대값	0.65						0.34					

*한국 예상치: 한국 전문가가 예상한 ‘중국 내 한국 이미지’

*한국 평가치: 중국 전문가가 평가한 ‘중국 내 한국 이미지’

*중국 예상치: 중국 전문가가 예상한 ‘한국 내 중국 이미지’

*중국 평가치: 한국 전문가가 평가한 ‘한국 내 중국 이미지’

이상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차이의 폭이다. 〈그림 8〉로 보자면 겹치지 않는 면적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국민·문화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큰 편이다. 그 각각에 대한 ‘평가치’와 ‘예상치’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표현하면, 0.92점, 0.46점, 0.58점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대략 0.65점의 차이가 나타난다(〈표 6〉 참조). 그러나 한국 정부·국민·문화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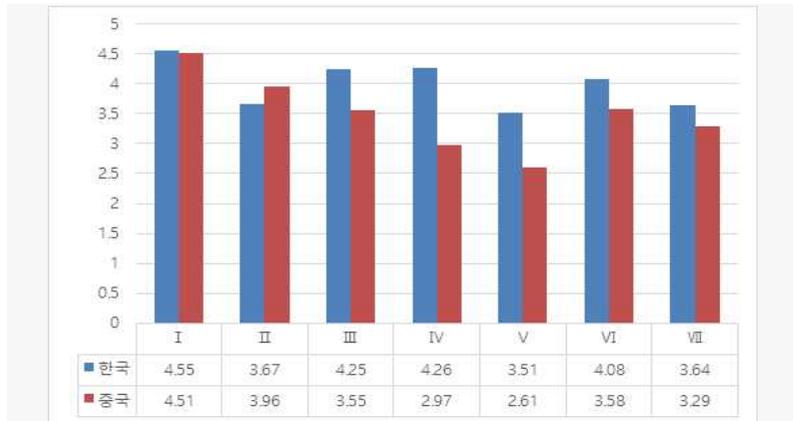
차이는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마찬가지로 그 각각에 대한 차이를 수치로 표현하면, 0.53점, 0.16점, 0.33점이다. 평균적으로 대략 0.34점의 차이가 나타난다. 중국 정부·국민·문화의 예상치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전문가 집단보다 중국 전문가 집단의 예상치 더 많이 어긋난 셈이다. 요컨대, 한국 전문가들이 중국 내 자국 이미지를 현실과 비교적 부합하는 수준에서 예상한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내 자국 이미지를 현실에 비해 더 과대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상과 평가 간 차이의 방향이 양국 전문가 사이에서 서로 반대였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국민·문화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음의 방향을 나타낸다. 즉 중국 전문가 집단이 예상한 것보다 한국 전문가 집단이 실제 평가한 내용이 훨씬 안 좋았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국민·문화에 대한 실제 평가치는 1.36점, 2.06점, 2.59점이었는데, 중국 전문가 집단은 이를 각각 2.28점, 2.52점, 3.17점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 정부·국민·문화의 경우에는 양(+)의 방향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 전문가 집단이 예상한 것보다 중국 전문가 집단이 실제 평가한 내용이 훨씬 좋았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국민·문화에 대한 실제 평가치는 3.18점, 2.92점, 3.45점이었는데, 한국 전문가 집단은 이를 각각 2.65점, 2.76점, 3.12점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특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사회(일반국민) 내 대중국 정서가 그만큼 악화했다는 의미이다. 특히 한국 전문가 집단의 예상치 모든 부분에서 중국 전문가 집단의 평가치보다 낮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한국사회(일반국민)의 대중국 정서가 심각하다 보니, 중국사회(일반국민)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추측했을 확률이 높다. 바꿔 말하자면, 한국사회의 대중국 이미지를 중국사회의 대한국 이미지에 투영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속도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의 대중국 이미지가 너무 빠르게 안 좋아지면서 중국의 전문가 집단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팬데믹으로 인해 한

중 간 인적 교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학술계 교류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직접 보고 듣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이든 한국사회(일반국민)의 중국 이미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림 9〉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끼친 요인



I 사드 배치

II 홍콩 및 티벳, 신장 이슈

III 김치 등의 역사·문화 갈등

IV 미세먼지 등의 환경 이슈

V 예능 표절 등의 지적재산권 이슈

VI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

VII 중국 언론의 보도 태도

〈조사〉에는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끼친 요인도 담겨 있는데(〈그림 9〉 참조), 여기서도 사회문화 분야의 이슈가 도드라지고 있다. 〈조사〉는 양국 전문가 집단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한중관계의 일곱 가지 이슈에 대해 그 부정적 영향의 수준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다. I 사드 배치,

II 홍콩 및 티벳, 신장 이슈, III 김치 등의 역사·문화 갈등, IV 미세먼지 등의 환경 이슈, V 예능 표절 등의 지적재산권 이슈, VI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 VII 중국 언론의 보도 태도. I 과 II가 정치적인 사안이라면, III과 IV, V 등은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두 개는 언론의 문제로 따로 구분해 둔다.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사드 배치(4.55점)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환경 이슈(4.26점), 역사·문화 갈등(4.25점),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4.08점) 등을 선택하였다. 중국 전문가 집단이 가장 먼저 꼽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4.51)였다. 그 뒤를 이어 홍콩 및 티벳, 신장 이슈(3.96점),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3.58점), 역사·문화 갈등(3.55점) 등이 자리하였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여전히 정치적인 사안이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한중 전문가 집단 모두 사드 배치를 가장 먼저 꼽았고, 중국 전문가 집단은 홍콩 및 티벳, 신장 이슈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2021년 조사에서는 역사·문화 갈등을 선택한 사람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국 전문가 집단의 경우 90명이 역사·문화 갈등을 선택하였으며, 중국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도 56명이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2020년 조사에 비해 각각 38명과 22명이 늘어난 결과이다. 반면 사드 배치의 경우에는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97명이 선택했고, 중국의 전문가 집단은 94명이 선택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역사·문화 갈등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요컨대 한중 전문가 집단 모두 사드 배치 이슈가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그러나 시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역사·문화 갈등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서도 한중 전문가 집단의 인식 사이에 일정한 수준 차이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한중 전문가 집단이 사회문화적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수준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역사·문

화 갈등의 경우,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4.25점으로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중국의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3.55점으로 그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예능 표절 등의 지적재산권 이슈에서도, 양국 전문가 집단 사이에는 3.51점과 2.61점의 차이가 나타난다.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에서는 거의 극적이기까지 하다.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4.26점으로 그 부정적 영향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전문가 집단은 2.9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표 7> 참조

<표 7> 사회문화 이슈의 영향력에 대한 한중 전문가 집단의 인식 차이

	정치외교				사회문화						언론 보도 태도			
	I		II		III		IV		V		VI		VII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점 수	4.55	4.51	3.67	3.96	4.25	3.55	4.26	2.97	3.51	2.61	4.08	3.58	3.64	3.29
차 이 절대값	0.04		0.29		0.7		1.29		0.9		0.5		0.35	
절대값 평균	0.17				0.96						0.43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인 사안에서 양국 전문가 집단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드 배치와 홍콩 등의 이슈에서 한중 간의 차이는 각각 0.04점과 0.29점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0.17점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사회문화적인 사안에서는 그 차이가 벌어진다. 역사·문화 갈등의 경우 양국 간의 차이는 0.7점에 달하며, 지적재산권 이슈에서도 0.9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는 환경 이슈에서 나타나는데 그 차이가 1.2점이다. 사회문화적인 사안의 경우, 평균적으로 0.96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중 전문가 집단이 모두 사회문화적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준에서는 한국의 전문가 집단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한국사회의 대중 정서가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사회문화 분야가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조사>는 한국

의 전문가 집단에게 중국 이미지에 긍정적일 수 있는 요소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경제적인 측면이었다(3.91점). 반면 드라마나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와 음식 및 역사 등의 중국 전통 문화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각각 3.06점과 3.47점으로 보통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중국의 전문가 집단은 드라마나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4.28점). 음식 등의 대중문화도 3.91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여기에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한중 전문가 집단의 평가 사이에 일정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중 전문가 집단은 모두 사회문화 분야의 한중관계가 이전보다 안 좋아졌다고 본다. 즉 그 방향에서는 궤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에 있어서는 한국의 전문가 집단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간교류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에서, 중국의 전문가 집단보다 한국의 전문가 집단이 사회문화 분야의 이슈에 좀 더 주목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전문가 집단이 예상한 중국 정부·국민·문화의 선호도는 한국 전문가 집단의 평가와 크게 달랐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서도 중국의 전문가 집단은 사회문화적 사안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 집단의 진단보다 한국 전문가 집단의 그것이 적어도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훨씬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

마. 2021 한중관계 테마분석 (1) — 청년세대 간 갈등

2021 한중 전문가 상호인식 조사는 최근 한중 청년세대 사이에 부각되고 있는 상호 부정적 인식의 확대 현상에 주목했다. 기성세대와 달리 한중 상호인식 차이가 양국의 청년세대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다루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중 전문가들에게 개방형 질문으로 물었

둘째, 정치체제와 역사문화 등 문제에 대한 상호인식 차이(Topic 2)

역시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이 공히 지적하는 갈등요인이었다. 정치체제 및 역사문화에서의 인식차는 근본적으로는 자국의 실질적 국력에 기인한다. 한국 청년세대들은 4.19.와 5.18. 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누적된 민주주의 유산을 간접적으로 배우며 자라왔고, 최근에는 광우병 및 탄핵 관련 촛불시위의 주체로 참여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도 청년세대는 97년 외환위기의 그늘을 벗어나 1인당 GDP와 무역, 첨단산업 등에서 승승장구하는 한국의 위상 속에서 성장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문화의 세계적 유행을 목격하면서 자국의 정치체제 및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더 고취하게 되었다.

중국 역시 개혁개방 이후 종합국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꾀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주창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도 중국은 방역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며 2.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인민들에게 국가의 능력과 공산당의 리더십을 과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 내 민족주의적 정서가 발흥하기에 유리한 외부환경이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의 자국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한층 더 높아졌고, 정부는 이를 더욱 고양시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청년세대 사이에 ‘귀차오(國潮)’, ‘귀평(國風)’ 열풍이 시작되었다. ‘귀차오’ 혹은 ‘귀평’은 표면적으로는 애국주의 소비 성향과 중국 전통문화의 부흥을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한껏 고양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나아가, ‘귀차오’는 기존의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국제조 2025’ 전략, 그리고 내수중심의 경제체제 전환을 뜻하는 ‘쌍순환’ 전략과도 연계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귀차오’ 열풍은 미중경쟁 상황에서 일시적인 ‘대안’이 아니라 중국의 중장기적 전략을 담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귀차오’는 중국에서 이미 일반 상품 유통시장을 넘어 문화소비, 문화 콘텐츠 IP 산업⁸⁾, 라이프 스타일까지 확장됐다는 사실이다. 이런 열풍을 이끄는 세대는 바로 중국 전체 인구의 27%(3억 7,000만 명)를 차지하고 있는 ‘90허우(90後)’와 ‘00허우(00後)’⁹⁾ 세대이다. 그들은 ‘귀차오 청년(國潮青年)’으로 불릴 만큼 국산품을 애용하고, ‘귀차오’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부각하고 자긍심을 고취한다. 이들이 성장한 2000년대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한 시기이자 중국이 애국주의 교육을 본격적으로 강화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중국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더 강한 애국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 청년세대는 각자의 가치관이 확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또 향유한다. 이 와중에 민감한 논쟁거리가 나타난다면 이는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기 쉬워지는 것이다. 특히 뉴미디어가 자극적이고 민감한 내용을 빠르게 전파하는 데 유리한 형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양국 청년세대 간 갈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 청년세대 간에 노정되고 있는 정치체제 및 역사문화 영역에서의 인식차를 축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셋째, 상호 이해 및 교류의 부족과 소통채널의 결핍(Topic 3)이다.

여기에서 ‘이해부족과 소통의 부재’는 단순한 미사여구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며 분석적으로 뜯어보아야 할 대상이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 글로벌 시민 간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더욱더 편리하고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청년세대 간에 ‘상호 이해와 교류의 부족’이 진단되고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하나는 여기에서 ‘부족과 결핍’이 가리키는 바는 소통과 교류의 물리적 채널/장 자체가 아니라, 양국간 갈등 및 오해를 해소하는 교류

8) 주로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혁신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가리킨다.

9) 1990년대 출생자와 2000년대 출생자를 의미한다.

메커니즘의 부재이다. 온라인 등지에서 확보되어 있는 소통채널은 과거에 비해 넘쳐나지만, 국내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정서를 유효하게 완충하는 메커니즘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소통채널은 소통이 아니라 공격의 경로로 기능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상호 간에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호인식의 격차가 확대되고 적대적인 태도가 커지면서 상대국에 대한 호기심과 상대국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의지가 위축되며 혐오를 재생산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유의미한 대처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양국 청년세대간 갈등을 축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상호이해 및 교류의 부족과 소통 채널 결핍에 대해서 한중 양국 전문가들은 일정 정도의 질적 차이를 내보이고 있다. 한국 전문가들은 ‘상호 교류의 부족’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그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한 인적 왕래의 급속 감소 현상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측에 비해 소통과 교류의 채널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중국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과 SNS 등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양자 간 문제 이외에 미중경쟁의 심화 및 국제환경의 변화(Topic 4)도 간과할 수 없는 환경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미국의 위상은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요소로 작용한다. 사드배치를 비롯하여 최근 몇 년간 한중 사이에 일어난 갈등의 주요한 발원지 중 하나는 미국이었으며,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 요인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치질서 차원의 구조적 영향이 청년세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국제환경의 변화에는 중국 경제력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가치사슬 내 지위 변화, 한중 국제분업구조의 수평적 성격 강화 등이 포함된다.

관련하여, 중국 전문가들은 ‘미중경쟁과 국제관계의 변화’를 한중 청년세대의 인식 차이가 벌어진 가장 큰 환경요인으로 보았다. 미중 전략경쟁은 중국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이며 미중경쟁의 큰 구도 속에서 한중관계를 바라보려는 경향이 표출되고 있다. 한편 한국 전문가들은 미중경쟁의 심화에 따른 한국의 양자택일 딜레마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측은 ‘중국의 부상’ 자체를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팽창에 따른 위협, △한중 종합국력의 비대칭성, △중국의 강대국적 사고 및 외교정책 등을 제시했다.

(2) 갈등해소 방안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양국 전문가들은 한중 청년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청년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 교류를 협력하고 확대(Topic 1, 2)하며, 다양한 민간 활동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한중 전문가들은 △ 구체적인 청년 교류 플랫폼 설립, △ 양국 청년세대 간 소통의 장 마련, △ 한중 유학생 네트워크 활용, △문화콘텐츠 활용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동시에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에서 ‘정부’의 의지와 주도적인 역할이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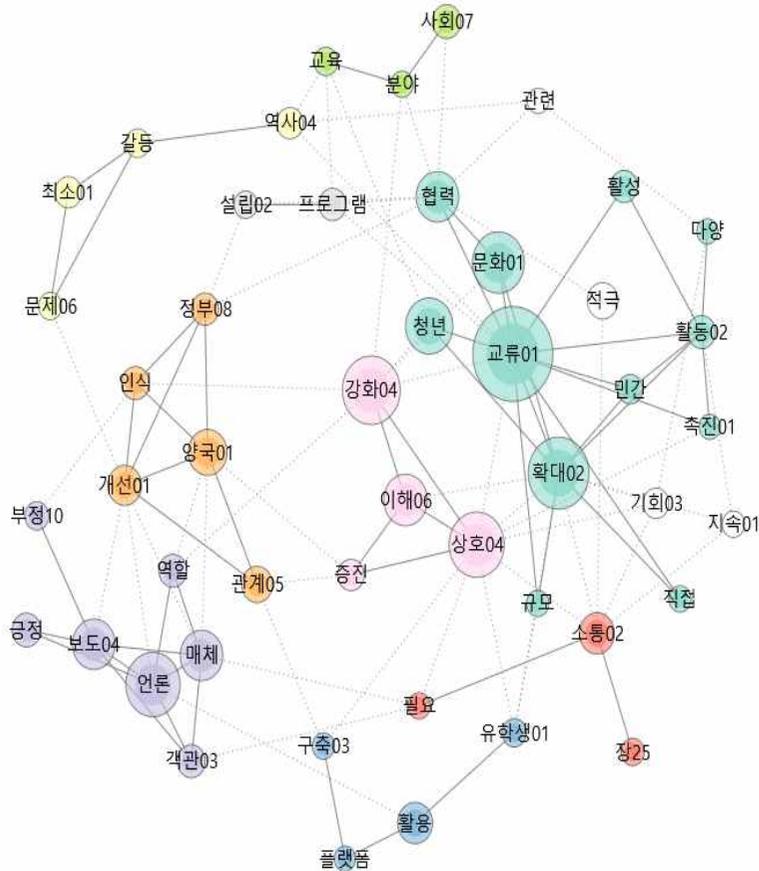
〈표 9〉 한중 청년세대 갈등해소 방안의 주요 토픽

Topic 1	청년세대 문화 교류 협력 확대 (조류)
Topic 2	공공외교를 통한 상호 이해 강화 (노랑)
Topic 3	언론매체의 객관성 보도와 긍정적 역할 기대 (빨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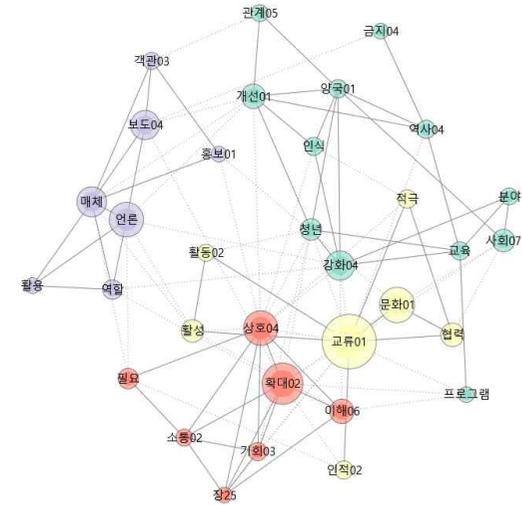
자료: <조사> 10번 문항 답변을 KH coder 텍스트마이닝 통해 추출.

<그림 13> 한중 청년세대 갈등 해소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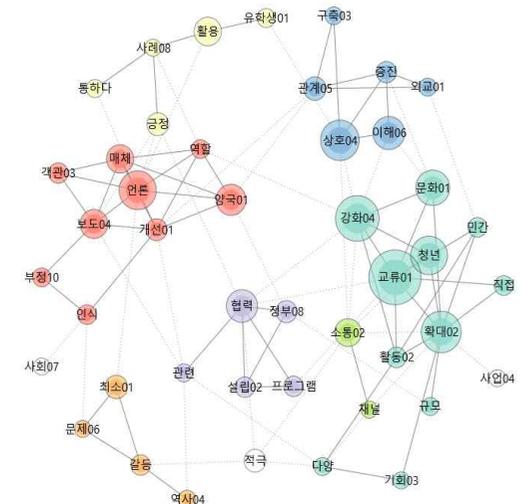
Q. 현 상황에서 양국 청년세대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한중관계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14> 한중 청년세대 갈등 해소 방안 (한국측)



<그림 15> 한중 청년세대 갈등 해소 방안 (중국측)



〈그림 16〉 한중 전문가들의 상대국 정보 획득 매체 분포



둘째, 양국 언론매체의 역할(Topic 3)도 강조되었다. 앞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현재 언론매체, 특히 온라인 언론의 부정적 보도와 사실무근의 가짜 뉴스나 차별적 기사들이 확산되는 것은 현재 한중 청년세대 갈등을 악화하는 주요 원인이다. 그런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들은 한편으로는 양국 청년들이 시공간적 제한을 초월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언론매체라는 ‘양날의 검’, 특히 온라인 뉴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양국 전문가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학교 수업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왜곡되고 부정적 정서가 각인될 경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점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 교류’를 제안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바. 2021 한중관계 테마분석 (2) — 한중 전문가들의 상대국 정보습득 경로

〈조사〉는 한중 전문가들이 상대국의 정보와 이슈를 습득하기 위해 이용하는 매체와 경로도 조사하였다. 이는 메타분석적 성격을 띠는데, 한중 전문가들이 한중관계 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제된 시각을 제공해 주는 집단일뿐만 아니라 자국 내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이 집단이 이용하는 매체 및 정보습득 경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향후 우리 공공외교 전개와 청년세대 갈등 완화에 있어 유의미한 정책적 자원이 될 수 있다. 한중 전문가들의 상대국 정보습득 경로는 〈그림 16〉과 같이 분포하고 있다.

Q. 귀하는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중국에 관한 핵심 정보를 획득하십니까? 2개만 골라 주십시오.

	한국(응답수/비율)		중국(응답수/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한국 언론매체	52	17.6%	68	23.9%
한국 SNS	7	2.4%	26	9.1%
한국 정부기관	34	11.5%	28	9.8%
한국 싱크탱크	7	2.4%	9	3.2%
한국 지인	4	1.4%	46	16.1%
중국 언론매체	54	18.2%	47	16.5%
중국 SNS	18	6.1%	6	2.1%
중국정부기관	20	6.8%	10	3.5%
중국싱크탱크	10	3.4%	26	9.1%
중국 지인	15	5.1%	10	3.5%
기타국가 언론매체	30	10.1%	6	2.1%
기타국가 정부기관	4	1.4%	0	0.0%
기타국가 싱크탱크	22	7.4%	1	0.4%
기타국가 지인	3	1.0%	1	0.4%
기타	16	5.4%	1	0.4%

먼저, 양국 전문가들이 가장 애용하는 상대국 정보습득채널은 언론매체(한국: 45.9%, 중국:42.3%)로, 양측 모두 상대국 언론매체를 통해 상대국 정보를 얻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한국: 18.2%, 중국:23.9%). 특기할 만한 것은, 한국 전문가들은 제3국 언론매체를 통해 중국의 정보를 얻는 비율(10.1%)이 중국 전문가가 제3국 언론매체를 통해 한국의 정보를 얻는 비율(2.1%)에 비해 크게 높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언론 뿐만 아니라 미국 중심의(서구 중심) 지식체계에 대한 신뢰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정치·외교·안보·경제·문화를 막론하고 체계화된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함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전문자료와 연구자들의 견해를 가장 권위있게 간주하지만, 중국은 그에 비해서는 낮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16>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한국 전문가들이 중국 정보습득을 위해 기타 언론매체/정부기관/싱크탱크를 이용하는 비율은 18.9%인 데 반해, 중국 전문가들의 비율은 2.5%에 불과하여 큰 차이를 내보인다.

이러한 양측의 정보습득경로 차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낳을 수 있다. 즉, 미중경쟁이 심화될수록 미국측 자료와 전문가 의견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한국 전문가들의 견해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래부터 존재하던 상이한 정치체제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뿐만 아니라 학계 전반에 깔려 있는 ‘미국 중심주의’와 ‘미국 예외주의’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큰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가 낳는 편향성은 중국측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의 언론매체는 기본적으로 중국 관방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국 관련 뉴스가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경우는 드물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율이 전제된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한중 양국 간에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에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소식이 쉽

게 전파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한중 양국 간에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 발생하면 너무나 쉽게 그 인식이 역전된다. 사드 문제가 터졌을 때 중국 내 한국 관련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가. 조사결과 요약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통해 현재 한중 전문가 간 상호인식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중관계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전반적 평가점수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분야에 대한 인식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한국측은 사회문화 분야의 상호인식과 이미지가 현저히 악화했고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과거에 비해 경색되었다고 본 반면, 중국측은 외교안보 영역을 다소 우려했으나 경제협력 분야에서 두드러진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에는 양국 사회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큰 반면, 한국은 여론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

또 전 분야에 걸쳐 중국측의 낙관적 태도와 한국측의 비관적 태도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중국측의 낙관적 태도는 경제협력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이것은 실질적 한중 상호 경제협력 증대에 근거한 전망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자신감으로 볼 수 있다.¹⁰⁾ 또한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내의 중국 이미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한국 전문가들은 중국 내의 한국 이미지를 실제와 거의 유사하게 판단하였다.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들은 양국 종합국력의 차이와 이로 인한 대외정책의 차이 그리고 양국 국민들의 정서적 특징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이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한국은 미중 경쟁 속에서 외교·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무역은 중국을 의지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특성을 보여 왔다. 중

10) 일례로,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는 2013년 628억 달러에서 2021년 240억 달러 규모로 감소했다. 자료: 수출입은행.

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차원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는 있으나, 과거 사드배치와 같은 안보갈등이 재발한다면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제3국 변수 혹은 국제체계 수준의 변수가 한중관계를 구조적 층위에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중국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사회문화 분야 이슈를 중심으로 악화하고 있다. 한중 양국 전문가 모두 사회문화 분야의 한중관계가 이전보다 악화했다고 평가했고, 한중 민간교류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역사·문화 인식의 차이” 등의 사회문화 이슈를 들었다. 특히 한국사회 내에서 중국 정부·국민·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김치, 한복 등 역사 기원 논쟁이나 환경 문제와 같은 사회문화 이슈가 작용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는 그간 한중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분야로 여겨져 왔고 양국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완충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문화 분야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보다 오히려 관계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넷째, 현재 사회문화 분야 한중갈등의 확산경로의 하나는 미디어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인적교류를 포함한 사회문화 분야 교류가 크게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 보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써 양국 언론의 부정적 보도의 영향력이 커지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조사>의 “언론의 부정적 보도가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문항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4.08점을 부여하여 그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으며, 중국 전문가들도 한국의 언론 보도 태도를 한중관계의 영향요인 중 세 번째 순위에 올려놓았다.

나아가, 한중 청년세대의 갈등이 뉴미디어를 위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최근 급격히 발전 중인 온라인 뉴미디어는 기존 미디어(legacy media)에 비해 디지털 문서화, 비정형적 활자배치, 쌍방향 인터랙션 등의 특징을 지닌다. 그런데 뉴미디어는 문화 파

급력과 참여적인 미디어 환경 창출 작용 외에도 포퓰리즘과 자극적 가짜뉴스 유포의 온상이 되거나 심지어 특정 집단 혹은 세력들에 의해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¹¹⁾ 실제 국내에서 최근 고조되고 있는 반중 정서는 휘발성 높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조작되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았으며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그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양국 청년세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뉴미디어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 온라인 세계에서 지식과 정보의 생산자이자 전파자,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갈등을 확대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

나. 정책적 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중 상호 간 국가이미지는 가장 좋았던 시기에 비해 악화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먼저 구조적 원인으로는 양국의 국력 비대칭성이 커지며 상호인식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드 배치와 한한령을 통한 보복은 한중관계를 수교 이후 가장 나쁜 상태로 만들었고, 경제관계에서도 점차 보완성보다 경쟁성이 강화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여기에 민족적 자부심(national pride)이 강한 양국 청년세대들을 중심으로 애국주의,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충돌선도 넓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더욱 확산될 위험이 있다.

첫째, 양국 간에 “이슈 분리”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한중관계는 다층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리스크를 단편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각각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타 분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이슈 분리”의 원칙이 필요하다. 현재 한중관계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이에 대한 중국

11) 이동연, 2021: p.89.

의 한한령이었고 이는 “이슈 연계”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따라서 양국 간에 이슈 분리 원칙이 만들어지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한중관계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국의 공동이익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중 수직적 국제분업관계가 점차 수평적 국제분업관계로 이행하면서 양국 경제관계는 보완성보다 경쟁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만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2021년말 현재 24%에 달하고 있어 단기간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발전적 공동이익을 새롭게 정의하고 상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새로운 양방향 소통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국내 언론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혐한 및 반한 감정이 80년대 이후 태어난 청년세대에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반중 정서의 확산경로의 하나인 뉴미디어를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가진 관심을 기반으로 새로운 소통 플랫폼으로 바꾸는 노력이다. 예컨대 삼국지, 수호전과 같은 고대 소설에 관한 파생 문화컨텐츠 공유 앱, 메타버스 한류 팬포럼, 무협소설 및 한국영화 공유 플랫폼, 한중 언어교환 혹은 튜터링 사이트, 맞춤형 여행상품 플랫폼 등이다.

이러한 소통 플랫폼 구축의 주역은 ‘디지털 네이티브’ 청년세대들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대학생, 대학원생, 온라인 인플루언서, 청년 지식인, 유사 업종 종사자 간 다양한 한중 미래세대의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세대가 양국의 부정적 정서를 증폭하고 있는 상황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를 건설하는 주체는 결국 청년들이다. 특히 한중 양국의 유학생들이 미래 지한파(知韓派)와 지중파(知中派)가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교류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청년 스타트업이 경제혁신의 주

요채널로 주목받고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연계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넷째, 공공외교가 ‘전파 중심’에서 ‘소통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한중 교류영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양국이 서로 자신의 우수한 점만 상대국에 전파하려는 태도에 있다. 물론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한류에만 의지하는 대중국 공공외교 전략은 문화콘텐츠 전파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종합국력의 상승과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열풍이 불고 있어 한류에만 의지하는 정책공공외교는 한계가 있다. 상대문화를 능동적으로 흡수하는 쌍방향적 공공외교의 교호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중 사회문화 교류는 정부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한중 양국 국민들은 상대 ‘국가’와 ‘사람’에 비해 ‘사회·문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호감이 있다. 그런데 정부의 개입은 ‘국가 브랜드 제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있고, 문화컨텐츠에 불필요하게 한류(韓流)나 “K-”라는 태그를 붙이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인과 같이 역사문화에 자부심이 크고 한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대상에게는 정책적 산물이라는 인상을 줄이고 “K-culture without K” 적 접근이 요구된다.

보론. 「2020~2021년간 한중 상호인식의 변화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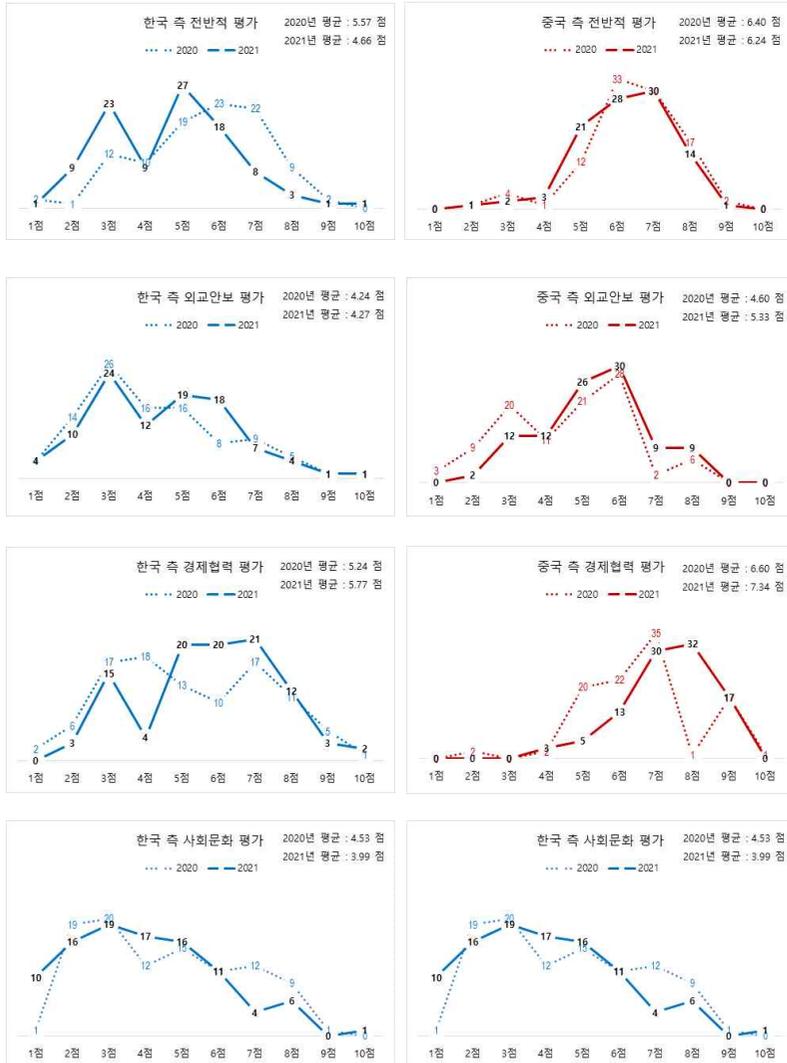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2020년에 진행한 <2020 한중 상호이미지 조사>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중관계 변화의 보다 동태적이고 시계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중관계에 대한 중국 전문가의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과 달리, 한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지난 1년 사이에 더 나빠졌다(<그림 17> 참조). 우선 ‘외교안보’ 분야의 점수는 4.24점(2020년)에서 4.47점(2021년)으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 전문가 설문결과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2020년 ‘경제협력’ 분야 점수가 5.24점, ‘사회문화’ 분야의 점수가 5.53점이고 ‘외교안보’ 분야의 점수는 4.24점으로 평가되어 한중관계 전 분야 중 ‘외교안보’ 분야가 가장 나빠졌던 데 반해, 2021년에는 외교안보 분야가 4.47점, 경제협력 분야가 5.77점, 사회문화 분야가 3.99점으로 한중관계 전 분야 중 사회문화 분야가 가장 악화했다는 사실이다.

중국 전문가들이 평가한 2021년 ‘외교안보’ 분야 한중관계 점수는 5.33점으로 2020년의 4.60점에 비해 상승했다. 중국 측의 경우 외교안보 분야의 점수가 5.33점, 경제협력 분야의 점수가 7.34점, 사회문화 분야의 점수가 6.04점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중관계 전 분야 중 외교안보 분야를 가장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 측의 경우 세 분야에서의 응답 분포도가 균일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인식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2021년 경제분야 한중관계 점수에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5.77점을 매긴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7.34점으로 평가하였는데, 2020년 경제분야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5.24점을 매기고 중국 전문가들은 7.32점을 매겼던 것에 비해서는 한국측 긍정도가 증가했고 중국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림 17> 한중 전문가 상호인식 평가 (2021-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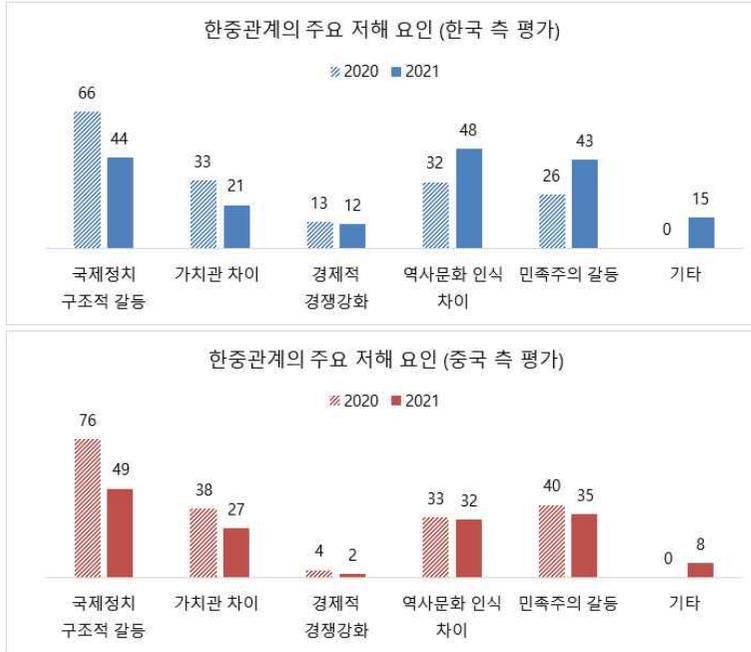


<표 10> 한중 전문가 한중 이미지 평가 (2020-2021)

평점	전체 (한국)		전체 (중국)		외교안보 (한국)		외교안보 (중국)		경제협력 (한국)		경제협력 (중국)		사회문화 (한국)		사회문화 (중국)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1점	2	1	0	0	4	4	3	0	2	0	0	0	1	10	0	0
2점	1	9	1	1	14	10	9	2	6	3	2	0	19	16	0	3
3점	12	23	4	2	26	24	20	12	17	15	0	0	20	19	2	6
4점	10	9	1	3	16	12	11	12	18	4	2	3	12	17	3	8
5점	19	27	12	21	16	19	21	26	13	20	20	5	15	16	10	20
6점	23	18	33	28	8	18	28	30	10	20	22	13	11	11	34	20
7점	22	8	30	30	9	7	2	9	17	21	35	30	12	4	33	21
8점	9	3	17	14	5	4	6	9	11	12	1	32	9	6	16	17
9점	2	1	2	1	1	1	0	0	5	3	17	17	1	0	2	5
10점	0	1	0	0	1	1	0	0	1	2	1	0	0	1	0	0
평균	5.57	4.66	6.4	6.24	4.24	4.47	4.6	5.33	5.24	5.77	6.6	7.34	4.53	3.99	6.49	6.04

가장 주목할 분야는 사회문화 분야이다. 사회문화 분야 한중관계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평가는 2020년 4.53점에서 2021년 3.99점으로 0.54점이 하락하였고 중국 전문가들도 1년간 0.45점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사회문화 분야는 한중 양측 모두에서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평가받은 분야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측의 외교안보 분야 점수는 0.23점 상승하였고 경제협력 분야 점수는 0.53점 상승하였다. 중국도 2020년에 비해 외교안보와 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점수가 각각 0.73, 0.74점 상승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국 전문가 집단의 평균점수 차이 또한 사회문화 분야에서 가장 컸는데, 2020년 1.96(6.49-4.53)이었던 양측간 사회문화 분야 점수 차이는 2021년에 2.05(6.04-3.99)로 확대되었다.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양국 전문가간 외교안보 분야 점수 차이는 0.86(5.33-4.47)이었고 경제협력 분야 점수 차이는 1.57(7.34-5.77)이었다. 요컨대 사회문화 분야 한중관계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가장 악화된 분야이자 양국 전문가 간 인식의 괴리가 가장 큰 분야이기도 했다.

<그림 18> 한중관계의 주요 저해 요인 (2020-2021)



2020년 조사에 참여한 한국 전문가 집단은 “국제정치 등 외부요인” (66명)을 양국관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보았다. 상대적으로 “역사·문화 인식의 차이”를 선택했던 전문가는 32명에 불과했다. “민족주의 갈등”을 선택한 응답자도 26명에 그쳤다. 2021년의 조사를 보면 “국제정치 등 외부요인”은 22명이 줄어든 반면 “역사·문화 인식의 차이”는 16명이 늘었고 “민족주의 갈등”도 17명이 늘었다. 즉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2021년에 사회문화 분야 이슈가 현재 한중 민간교류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상대국 대상별 점수 역시 2020년보다 더욱 나빠졌다. 2020년 조사에서 한국의 전문가 집단은 중국 정부·국민·문화에 대해 각각

1.51점과 2.15점, 3.01점으로 평가했는데 2021년 조사결과는 1.36점, 2.06점, 2.59점으로 각각 0.15점, 0.09점, 0.42점 하락하였다. 특히 중국 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적어도 2020년 조사에서 중국문화는 유일하게 ‘보통’의 평가를 받은 곳이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중국문화에 대한 평가마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경영환경 전망과 시사점.” 『국제 무역통상연구원 Trade Focus』 2021년 제39호, 2021.
-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근 10년 한국기업 중국내 사업환경 변화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2021.12.22.).
- 안중석. “중국 소비자의 적대감이 국가이미지 효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영연구』 제25권 제2호, 2014.
- 이동연. “뉴미디어와 포퓰리즘은 어떻게 공존하는가.” 『황해문화』 통권 제113호, 2021.
- 이계홍. “외교분쟁에 따른 국가이미지 변화와 수출경쟁력 영향분석: 한국과 중국의 THAAD 분쟁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제14권 제4호, 2018.
- 이춘수, 이장로, 서민교. “한국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간의 상호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삼성전자의 중국소비자를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4호, 2006.
- 최필수. “2021년 한중 경제관계: 미중갈등과 산업경쟁력 변화의 도전과 대응.” 『2021 중국정세보고』, 출간예정.
- Babbie, EarL R.(고성호·김광기·김상욱·문용갑·민수홍·유홍준·이성용·이정환·장준오·정기선·정태인 옮김).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톰슨코퍼레이션코리아, 2007.
- 门洪华·刘笑阳. “中韩关系的不确定性因素及其战略应对.” 《东北亚论坛》第4期, 2017.
- 朴光海. “新冠疫情下的中韩关系及其发展前景.” 《当代韩国》第2期, 2020.
- 王晓玲·董向荣. “韩国人心目中的中国形象——基于焦点集团访谈的研究结果.” 《当代亚太》 2010(02), 2010.
- 徐玉兰. “韩国媒体中的中国国家形象——以《朝鲜日报》为例.” 《新闻爱好者》 2010(21), 2010.
- Turoff, Murray. “The Design of a Policy Delphi.”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2-2, 1970.